

<반짝반짝 한국어> -답다/-스럽다(Suffixes)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3 episode 3.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F: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M: 안녕하세요. 스테파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F: 전 오랜만에 명동에 나갔다 왔는데요. 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M: Every time I go to 명동, I wonder how the cosmetic stores can be still in business having so much competition.

F: 한국에 그 많은 커피숍들에 모두 손님이 많은 것과 비슷한 거죠.

M: 아, 그런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는 한국 남자들도 화장품을 많이 산다면요?

F: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특히 요즘 십대, 이십대 어린 남학생들이 남성용 화장품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M: 그러게요. 이렇게 말하니 우리 좀 나이 든 거 같지 않아요?

F: 사실 적지는 않죠, 뭐. 제가 대학생 때는 남자다운 스타일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오빠 타입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여성스러운 남자들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M: I think so too. Today, many girls seem to prefer 'cute' boys that behave girlishly, and many people seem to think that it's normal for a man to take care of his beauty like a girl would. 진이 씨는 어때요?

F: 전 아직 남자다운 남자가 좋아요.

M: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성스럽다', '남자답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늘은 문법 대신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F: 좋지요. 오늘은 그럼 '-답다'와 '-스럽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M: When we study Korean, we can see a lot of suffixes. Actually that's almost all about suffixes, so if you use them well, your Korean will improve significantly.

F: 그렇죠. 그런데 '-답다'와 '-스럽다'는 사실 비슷한 의미가 있잖아요. 스테파노 씨는 이 두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M: In the dictionary, -답다 -스럽다 are listed as affixes that transform the noun they are attached to into an adjective, to mean that something "look like", or "has the same properties" of the noun they are derived by.

F: 맞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M: What's the exact difference between -답다 and -스럽다? I tried and looked it up in a few books and dictionaries, but it is still not completely clear.

F: 하나씩 얘기해 보죠. 만약 우리가 '그 남자는 남자답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가 남자로서 원래 가져야 할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M: 그럼 '그 남자는 여성스럽다'는요?

F: 이때는 그 남자는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 같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자처럼 느껴진다는 의미가 되지요.

M: So -답다 is used when someone or something should already possess those attributes and properties, whereas -스럽다 is used when someone or something has those attributes but they are not necessarily part of its nature.

F: 네, 맞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저 아이는 어른스러워!'하고 '어른다운 행동을 하세요'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알겠어요?

M: Well, I guess 저 아이는 어른스러워요 means that a kid is not an adult but he/she has characteristics or a particular behaviour that make him feel mature. On the contrary, 어른다운 행동을 하세요 means literally "behave like a mature person", but precisely because *you are* mature.

F: 아주 정확히 말해 줬네요. 여러분도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런데 '-답다', '-스럽다'가 모든 표현에 다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에는 '-답다', '-스럽다'가 쓰인 여러 단어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 네,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F: 스테파노 씨가 아는 단어에는 어떤 게 있어요?

M: 먼저 '-스럽다'가 쓰인 단어는 여성스럽다, 어른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자연스럽다, 고급스럽다, 바보스럽다, 음..그리고 자랑스럽다?

F: 우와. 많이 아네요. 그럼 '-답다'는요?

M: 먼저 아름답다와 남자답다. 그리고 학생답다, 선생님답다, 나답다, 너답다 정도?

F: 그 정도? 그럼 우리 '-답다'와 '-스럽다'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누가 누가 더 재미있는 거 말하는지 해 봅시다.

M: 좋아요. 진이 씨는 한국어 선생님답게 한국어 스펠링 틀린 걸 못 참아요.

F: 어, 어떻게 알았어요? 직업병이죠 뭐. 우리 스테파노 씨는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답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M: 아이구 맞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를 보는데요. 거기 나오는 배우 이서진은 보통 때는 남자다운 이미지지만 가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해서 재미있더라고요.

F: 오, 맞아요. 이서진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가 생각 나네요.

M: 뭔데요?

F: 한국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보통 때와는 다른 여자의 모습에 실망한 남자가 하는 말이 있죠. '너답지 않게 왜 그래?'

M: 저 그 말 자주 들은 것 같네요. 전 그거 대답도 알아요. '나다운 게 뭔데?' 맞죠?

F: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그리고 '-답다', '-스럽다'가 사용된 단어를 이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M: 예문을 올릴 주소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F: 자, 그럼 드라마 얘기가 나온 김에 드라마 속 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워 보는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M: 그 드라마 속 그 대사가 알고 싶다!

F: 네, 이번 주도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요,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M: Is this drama a black comedy? I heard it's become pretty popular because it makes fun of Korean upper classes.

F: 맞아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인상의 가족은 한국의 상류층인데요. 그래서 인상의 아버지는 쫄면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M: 아, 쫄면! 그거 맵지 않나요?

F: 아주 맵지요. 어느 날 인상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쫄면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너무 먹고 싶어져서 쫄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쫄면을 준비해 주는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잘 들어 보세요

"갑자기 출출해져서요. 아이구, 색깔이 아주, 군침 도네요."

M: 하하 다 제가 자주 쓰는 말들이네요.

F: 그렇죠? '출출하다'는 좀 배가 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출출하다라고 해요. 아주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뭔가 먹고 싶을 때요. 스테파노 씨는 언제 출출해요?

M: 저녁을 일찍 먹은 날 밤 치킨 광고를 보면 출출해지죠!

F: 저도요. 밤에 출출할 때는 야식이 최고죠. 떡볶이, 치킨, 쫄면, 족발...아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 딱 눈앞에 있으면 갑자기 식욕이 생기면서 침이 막 나오잖아요.

M: Like a dog that goes crazy when it sees something to eat, Huh?

F: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군침이 돌다'예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빨강고 참기름 냄새가 살짝 나는 음식을 보면 완전 먹고 싶어지거든요. 군침이 돌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돌아요?

M: 아무래도 파스타나 피자이겠죠?

F: 아, 역시 이탈리아 사람이네요. 오늘 배운 표현은 쉬워서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들어 보세요.

"갑자기 출출해져서요. 아이구, 색깔이 아주, 군침이 도네요.", "갑자기 출출해져서요. 아이구, 색깔이 아주, 군침이 도네요.", "갑자기 출출해져서요. 아이구, 색깔이 아주, 군침이 도네요."

M: 아 들으면 들을수록 야식 생각만 나요!

F: 그럼 우리 얼른 접고 집에 가요. 여러분은 언제 출출해지시나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도시나요? 저희 페이스 북에 남겨 주세요.

M: 저희 주소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F: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M: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M: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

© 2015 Gilddong KFL All right reserved.

